

공감향상훈련이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의 공감과 가해정도에 미치는 효과

정 정 분 · 김 중 미
(원평초등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왕따', '은따', '이지매', '집단 따돌림', '집단괴롭힘' 등의 말들은 더 이상 새롭거나 낯선 용어가 아니고, 아동이나 청소년의 또래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으로 학교차원을 넘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집단따돌림의 영향력은 지배적이어서 한 번 따돌림을 당하면 벗어나기 힘들어 초등학교 때의 따돌림이 소문이 나서 중학교까지 계속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동기 때의 따돌림의 경험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같은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와 학교에서의 학습과 집중의 곤란, 학교적응 곤란,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인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Olweus, 1994)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집단따돌림의 악순환이나 확대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집단따돌림의 피해아동뿐 아니라 가해아동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집단따돌림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집단따돌림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혜영, 2000; 김순환, 1999; 문경숙, 2001; 손진희, 양재혁, 홍지영, 1999; 유채환, 2002; 최귀순, 2001). 그러나 집단따돌림 현상은 피해자 자신에게 내재된 문제의 개

선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만, 가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을 찾기가 힘들다. 집단따돌림 피해아동들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인 또래집단에서 소외되어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집단따돌림 가해아동들 역시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통찰이 부족하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권은영, 2000; 김석진, 1999; 이영선, 2002; 이창식, 2000; 한종철, 김인경, 2000). 뿐만 아니라 가해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다른 아동에 비해 크다.

Olweus(1994)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사이에서 가해자로 지정된 학생의 60%가 24세 때 최소한 한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35~40%는 그 나이에 세 번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집단따돌림을 가해하는 주도자인 동시에 희생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 따돌림 현상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는 또래괴롭힘이 특히 빈번하게 보고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최미경, 도현심, 2001)결과, 피해아들은 2,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또래괴롭힘이라는 문제 자체는 중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될지라도(조선일보, 1999년 1월 5일자 25면) 문제는 이미 아동기에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청소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의 해결을 위한 중재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자한 시도로 오형석(2000)이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의 가해정도를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아동들의 성격 특성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김석진, 1999; 김용태, 박한샘, 1997; 김인규, 1996; 한종철, 김인경, 2000; Besag, 1989 재인용; Olweus, 1984). 다시 말해서 친구를 때릴 때의 기분과 맞는 친구의 기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맞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친구를 때리는 이유로서 '쳐다봐서', ' 괜히 튼다', '말을 듣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라고 지적하였으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사고와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동들의 인간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곽경련, 2002; 김기순, 1996; 박재룡, 2001; 송호연, 1999; 이옥수, 1996; 채현탁, 1998). 그러나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 중,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공감향상훈련을 적용하여 이들의 공감향상 정도와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의 가해정도의 변화 측면에서 그 효과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공감향상훈련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공감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감향상훈련을 적용한 훈련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훈련 직후에 공감 점수가 향상될 것이고, 그 훈련 효과는 8주 후까지 지속될 것이다.

[가설 2] 공감향상훈련을 적용한 훈련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훈련 직후에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가 의미있게 감소될 것이고, 그 효과는 8주 후까지 지속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 아동은 T시 소재 Y초등학교 5학년 아동 40명과 T시 소재 S초등학교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또래지명 검사(K-PNI)를 실시하여 동료들의 지명에 의해 집단따돌림 가해자로 지명된 아동을 Y·S초등학교별로 10명씩을 선정하여 각각 훈련집단(남5명, 여5명)과 통제집단(남5명, 여5명)으로 하였다.

2. 검사도구

한국형 또래지명검사(K-PNI) Perry(1988)가 제작한 또래지명 설문지(Peer Nomination Inventory)와 국내 연구자료(가우디, 1999;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4)를 기초로 김영신, 공운주, 노주선(2000)이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Korean Peer Nomination Inventory; K-PNI)를 사용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검사 본 연구에 사용한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검사지는 한국형사정척

연구원(1997)과 김용태와 박한샘(1997), 황성숙(199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석진(1999)이 제작한 것이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를 구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83이었다. 검사 도구는 3단계 평정척도로 집단 따돌림 가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소외무시 집단따돌림 항목은 Cronbach α 가 .50이었고, 조롱놀림 집단따돌림은 .70, 욕설협박 집단따돌림은 .69, 강탈구타 집단따돌림은 .61이었다.

공감 검사 본 연구에서 공감향상훈련을 통해 변화된 공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Davis(1980)의 척도를 수정하여 상담자의 공감 변화를 측정한 신경일(1994)의 공감척도검사를 송호연이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송호연(1999)이 사용한 전체 39문항 중 5문항을 제외한 34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로 되어 있고 Cronbach α 를 구한 결과 .85이었다.

3. 훈련도구

본 연구의 공감향상훈련은 Carkhuff(1969)의 지시적, 경험적 훈련방법과 Egan(1976)의 대인 실험실 훈련모형을 참고로 하고, 신경일(1994)의 상담자를 위한 공감 훈련 프로그램과 이은순(1991), 권정안(20002), 박재룡(2001)의 공감향상훈련을 근간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공감의 인지적 정의적 요소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적 표현 연습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는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표 1> 공감향상훈련

단계	회기	제목	목표 및 내용	비고
도입	1	프로그램안내 및 소개 (인지적 요소)	-자기소개 하기 -서약서 쓰기	서약서소 감문
	2	주의집중훈련 (인지적 요소)	-경청연습	관찰
공감의 이해	3	장점 찾아 키우기 (인지적, 정서적 요소)	-신체적 주의집중 기술 습득 -큰소리로 마음껏 웃기	기록지 질문지
	4	내 감정 표현하기 (인지적 요소)	-자신의 장점 찾아서 이야기하기 -감정형용사 목록 공부하기	활동지
	5	나-메시지 (정서적 요소)	-'감정표현' 활동지 작성 후 발표하기 너-메시지를 나-메시지로 바꾸기 자신의 감정을 나-메시지로 바꾸기	활동지
	6	네 마음 받아주기(1) (인지적, 정서적 요소)	-관점 수용 기술 습득	활동지
	7	네 마음 받아주기(2) (정서적 요소)	-내가 말한 내용을 이해한다.	활동지
	8	네 마음 받아주기(3) (정서적, 의사소통 요소)	-공감의 말을 찾아보자 -공감의 말을 해보자	활동지
공감의 실제	9	활동지를 이용한 공감훈련(1) (정서적, 의사소통 요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표현한 후 공감반응 하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완성한 후 공감 반응하기	활동지
	10	활동지를 이용한 공감훈련(2) (정서적, 의사소통 요소)	-'나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소감 한마디'를 완성한 후 공감 반응하기	활동지
	11	대인관계 훈련 (정서적, 의사소통 요소)	-고민거리 털어놓기와 솔직해지기 -공감적 의사소통으로 갈등 해결하기	
마무리	12	공감의 생활화를 위하여 (정서적, 의사소통 요소)	-훈련정리, 장점세례 -자기 자신의 변화 찾아보기 -사후평가	자기 평가 검사지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공감향상훈련이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의 공감향상과 가해정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감향상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공감검사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검사를 각각 사

전에 실시하였고(사전검사), 공감향상훈련이 끝난 직후에 공감검사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검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사후검사), 훈련 종료 8주 후에 훈련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검사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감검사 가해정도검사를 실시하였고(지속검사), 독립변인별로 분리하여 [가설 1], [가설 2] 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공감향상훈련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6주간 12회에 걸쳐 1주일에 2회기로 구성하였다. 훈련은 본 연구자의 교실에서 방과 후 40분 동안 실시하였는데, 활동을 할 때마다 훈련대상자에게 본 활동의 목표와 주의사항을 5분간 안내하고, 30분 동안 공감향상훈련을 적용한 후, 5분간 느낀점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훈련 집단 10명과 통제 집단 10명을 대상으로 각각 사전사후 및 지속검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는 윈도우즈용 SPSS와 Kwakstat(곽호완, 1993)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하였고, 집단 2(훈련집단, 통제집단) × 검사시기(3)(사전, 사후, 지속검사)의 이요인 혼합설계이다. 집단은 피험자간 변인, 검사시기는 피험자내 변인이고,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지속검사 점수를 변량분석(ANOVA)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공감

가. 공감과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간의 상관

공감과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와 그 하위 형태와의 관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두 변인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공감 점수와 집단따돌림 가해총점 간에는 <표 3>과 같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131)=-.30, p<.01$). 그리고 공감점수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하위 유형인 무시소의($r(131)=-.21, p<.05$), 조롱놀림($r(131)=-.28, p<.01$), 욕설협박($r(131)=-.20, p<.05$), 강탈구타($r(131)=-.20, p<.05$)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의 공감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정도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표 2> 공감 점수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간의 상관

	가해총점	가해정도 하위유형			
		무시소외	조롱놀림	욕설협박	강탈구타
공감	-.30**	-.21*	-.28**	-.20*	-.20*

** $p < .01$, * $p < .05$

나. 공감향상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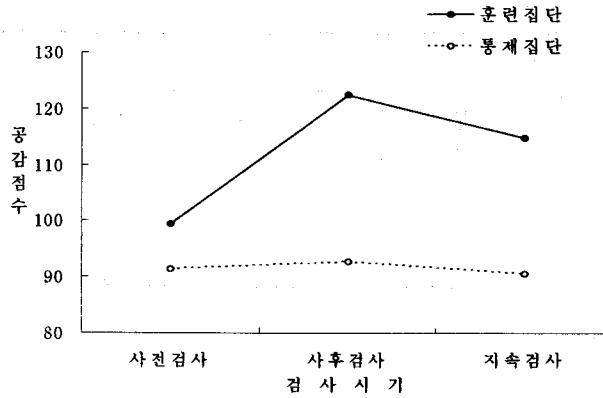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공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것은 <표 3>,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 이다.

<표 3> 공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M	SD	M	SD	M	SD
훈련집단	99.40	20.66	122.40	22.33	114.80	20.76
통제집단	91.70	20.50	92.70	18.76	90.60	17.21

<표 4> 공감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A (집단)	6324.27	1	6324.27	5.62	.05
S/A	20271.47	18	1126.19		
B (시기)	1457.63	2	728.82	16.89	.001
AB	1310.83	2	655.42	15.19	.001
BS/A	1553.53	36	43.15		
Total	30917.73	59			



[그림 1]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공감 점수의 상호작용효과

변량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18)=5.62, p<.05$), 검사시기의 주효과($F(2, 36)=16.89, p<.001$) 및 상호작용효과($F(2, 36)=15.1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공감 점수가 사전검사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18)=.70, ns$), 사후검사($F(1, 18)=10.37, p<.01$)와 지속검사($F(1, 18)=8.05, p<.025$)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을 실시하기 전의 공감능력은 훈련집단($M=99.40$)과 통제집단($M=91.7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을 실시한 직후에는 훈련집단($M=122.40$)과 통제집단($M=94.70$), 8주 후의 지속검사에서도 훈련집단($M=114.80$)과 통제집단($M=90.6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훈련집단의 공감능력 점수는 사전검사($M=99.40$), 사후검사($M=122.40$) 및 지속검사($M=114.8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집단의 검사시기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ukey의 HSD로 사후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훈련집단의 검사시기에 따른 공감향상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사전, 사후 및 지속검사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이 훈련 직후에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지속검사 모두 공감 점수를 의미있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8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검사에서 지속검사에 걸쳐 공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으므로, 공감향상훈련은 공감 점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증가된 공감 점수는 8주 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5> 공감 점수의 단순주효과 검증결과

Source	SS	df	MS	F	P
집단 @ 사전검사	296.45	1	296.45	0.70	ns
S/A	7622.50	18	423.47		
집단 @ 사후검사	4410.45	1	4410.45	10.37	.01
S/A	7656.50	18	425.36		
집단 @ 지속검사	2928.20	1	2928.20	8.05	.025
S/A	6546.00	18	363.67		
검사시기 @ 훈련집단	2746.40	2	1373.20	111.54	.001
S/A	221.60	18	12.31		
검사시기@통제집단	22.07	2	11.030	0.15	ns
S/A	1331.93	18	74.00		

<표 6> 훈련집단의 공감 점수 사후검증결과

평균	사전(M=99.40)	사후(M=122.40)	지속(M=114.80)
사전(M=99.40)	-	23.0*	15.40*
사후(M=122.40)		-	7.60*
지속(M=114.80)			-

HSD=7.15, * p<.05

2.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와 하위유형 간의 상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와 하위유형과의 관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을 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와 하위유형은 모두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하위유형 중 무시소외와 강탈구타 간에는 .05수준에서($r(131)=.17$, $p<.05$), 그 외 가해정도 하위유형 간에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와 집단따돌

립 하위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와 하위유형 간의 상관

	가해정도 총점수	하위유형			
		무시소외	조롱놀림	욕설협박	강탈구타
가해정도총점수	1.00	.59**	.80**	.90**	.66**
무시소외		1.00	.40**	.37**	.17*
조롱놀림			1.00	.61**	.23**
욕설협박				1.00	.58**
강탈구타					1.00

** $p < .01$, * $p < .05$

<표 8> 훈련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및 지속 검사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훈련집단			통제집단		
	사전	사후	지속	사전	사후	지속
전체	45.90(4.20)	38.00(2.98)	41.40(3.69)	46.00(4.55)	46.10(4.93)	47.10(4.15)
무시소외	9.30(1.25)	7.50(1.08)	8.00(1.15)	8.70(1.57)	9.10(1.60)	9.50(1.51)
조롱놀림	13.30(2.06)	11.00(2.49)	11.70(2.16)	14.60(2.46)	14.40(2.84)	14.80(2.49)
욕설협박	13.10(2.13)	10.50(1.58)	12.40(2.55)	12.50(2.42)	12.80(2.20)	13.00(2.16)
강탈구타	10.20(1.93)	9.00(1.05)	9.30(1.57)	10.20(2.15)	9.80(1.93)	9.80(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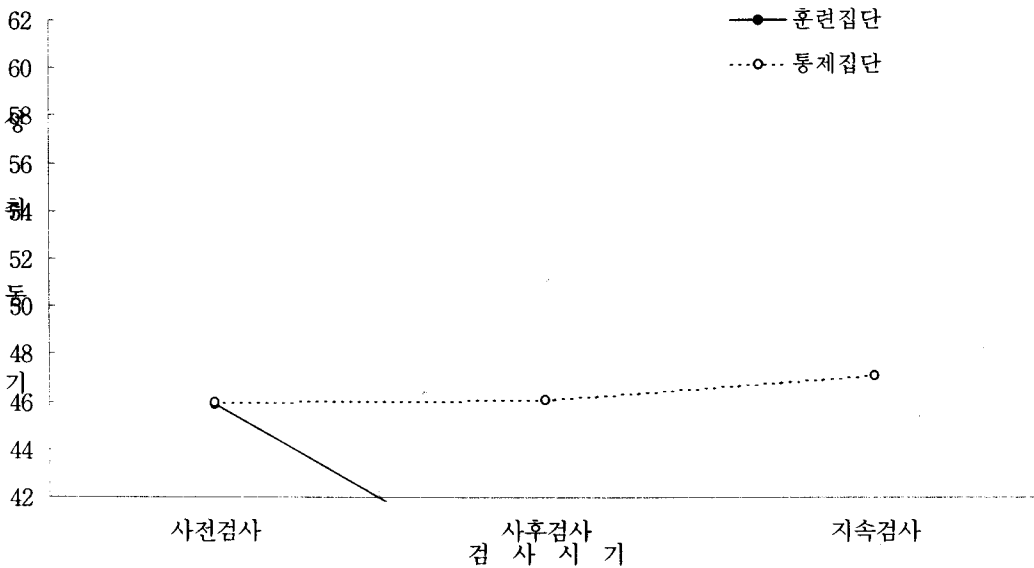
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에 미치는 효과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정도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18) = 6.91, p < .025$), 검사시기의 주효과($F(2, 36) = 33.35, p < .001$) 및 상호작용효과($F(2, 36) = 36.76,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가 사전검사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18) = .00, ns$), 사후검사($F(1, 18) = 19.76, <.001$)와 지속

<표 9>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A(집단)	322.02	1	322.02	6.91	.025
S/A	838.57	18	46.59		
B(검사시기)	152.93	2	76.47	33.35	.001
AB	168.53	2	84.27	36.76	.001
BS/A	82.53	36	2.29		
Total	1564.58	59			



[그림 2]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의 상호작용효과

속검사($F(1, 18)=10.54, p<.01$)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을 실시하기 전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는 훈련집단($M=45.90$)과 통제집단($M=46.0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을 실시한 직후에는 훈련집단($M=38.00$)과 통제집단($M=46.10$), 8주 후의 지속검사에서도 훈련집단($M=41.40$)과 통제집단($M=47.1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훈련집단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는 사전검사($M=45.90$), 사후검사($M=38.00$) 및 지속검사($M=41.4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집단의 검사시기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로 사후검증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훈련집단의 검사시

기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사전, 사후 및 지속검사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이 훈련 직후에는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를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지속검사 모두 의미있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8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검사에서 지속검사에 걸쳐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므로, 공감향상훈련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점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훈련을 통해 감소된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점수는 8주 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10>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의 단순주효과 검증결과

Source	SS	df	MS	F	P
집단 @ 사전검사	0.05	1	0.05	0.00	ns
S/A	344.90	18	19.16		
집단 @ 사후검사	328.05	1	328.05	19.76	.001
S/A	298.90	18	16.61		
집단 @ 지속검사	162.45	1	162.45	10.54	.01
S/A	277.30	18	15.41		
검사시기 @ 훈련집단	313.07	2	157.03	69.62	.001
S/A	40.60	18	2.26		
검사시기 @ 통제집단	7.40	2	3.70	1.59	ns
S/A	41.94	18	2.33		

<표 11> 훈련집단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 총점수의 사후검증 결과

평균	사전(M=45.90)	사후(M=38.00)	지속(M=41.40)
사전(M=45.90)	-	7.90*	4.50*
사후(M=38.00)		-	3.40*
지속(M=41.40)			-

HSD=1.65, * $p < .05$

다. 집단따돌림 하위유형별 점수에 미치는 효과

1)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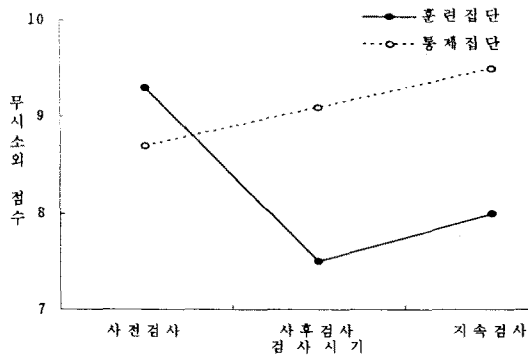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것은 <표 12>,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표 12>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M	SD	M	SD	M	SD
훈련집단	9.30	1.25	7.50	1.08	8.00	1.15
통제집단	8.70	1.57	9.10	1.60	9.50	1.51

<표 13>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A(집단)	10.42	1	10.42	2.01	ns
S/A	93.23	18	5.18		
B(검사시기)	5.03	2	2.52	10.22	.001
AB	15.43	2	7.72	31.33	.001
BS/A	8.87	36	0.25		
Total	132.98	59			



[그림 3]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의 상호작용효과

<표 14>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의 단순주효과 검증결과

Source	SS	df	MS	F	P
집단 @ 사전검사	1.80	1	1.80	0.90	ns
S/A	36.20	18	2.01		
집단 @ 사후검사	12.80	1	12.80	6.90	.025
S/A	33.40	18	1.86		
집단 @ 지속검사	11.25	1	11.25	6.23	.025
S/A	32.50	18	1.81		
검사시기 @ 훈련집단	17.27	2	8.63	23.08	.001
S/A	6.73	18	0.37		
검사시기 @ 통제집단	3.20	2	1.60	13.50	.001
S/A	2.13	18	0.12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18)=2.01,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검사시기의 주효과($F(2, 36)=10.22, p<.001$) 및 상호작용효과($F(2, 36)=31.3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5)에 따르면, 무시소외 집단따돌림 점수가 사전검사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18)=.90, ns$), 사후검사($F(1, 18)=6.90, p<.025$)와 지속검사($F(1, 18)=6.23, p<.025$)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을 실시하기 전의 무시소외 집단따돌림은 훈련집단($M=9.30$)과 통제집단($M=8.7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을 실시한 직후에는 훈련집단($M=7.50$)과 통제집단($M=9.10$) 간, 8주 후의 지속검사에서도 훈련집단($M=8.00$)과 통제집단($M=9.5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훈련집단의 무시소외 집단따돌림 점수는 사전검사($M=9.30$), 사후검사($M=7.50$) 및 지속검사($M=8.0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통제집단도 무시소외 집단따돌림 점수가 사전검사($M=8.70$), 사후검사($M=9.10$) 및 지속검사($M=9.5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훈련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시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로 사후검증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에서 훈련집단의 검사시기에 따른 무시소외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그리고 사전검사와 지속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사와 지속검사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이 무시소외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효과가 8주 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16>에서 통제집단의 검사시기에 따른 무시소외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표 15> 훈련집단의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의 사후검증결과

평균	사전(M=9.30)	사후(M=7.50)	지속(M=8.00)
사전(M=9.30)	-	1.80*	1.30*
사후(M=7.50)		-	0.50
지속(M=8.00)			-

HSD=0.54, * p<.05

<표 16> 통제집단의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의 사후검증결과

평균	사전(M=8.70)	사후(M=9.10)	지속(M=9.50)
사전(M=8.70)	-	0.40	0.80*
사후(M=9.10)		-	0.40
지속(M=9.50)			-

HSD=0.54, * p<.05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후검사와 지속검사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전검사와 지속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제집단에서는 사전검사에서 지속검사에 걸쳐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가 의미있게 증가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감향상훈련은 훈련집단의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된 무시소의 집단따돌림 점수는 8 주 후까지 지속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2)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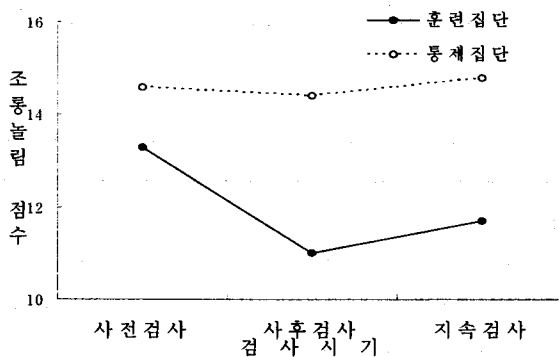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것은 <표 17>,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 이다.

<표 17>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M	SD	M	SD	M	SD
훈련집단	13.30	2.06	11.00	2.49	11.70	2.16
통제집단	14.60	2.46	14.40	2.84	14.80	2.49

<표 18>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A(집단)	101.40	1	101.40	6.18	.025
S/A	295.20	18	16.40		
B(검사시기)	15.70	2	7.85	12.08	.001
AB	12.90	2	6.45	9.92	.001
BS/A	23.40	36	0.65		
Total	448.60	59			



[그림 4]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18)=6.18, p<.025$), 검사시기의 주효과($F(2, 36)=12.08, p<.001$) 및 상호작용효과($F(2, 36)=9.9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가 사전검사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18)=1.64, ns$), 사후검사($F(1, 18)=8.10, p<.025$)와 지속검사($F(1, 18)=8.85, p<.01$)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을 실시하기 전의 조롱놀림 집단따돌림은 훈련집단($M=13.30$)과 통제집단($M=14.6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을 실시한 직후에는 훈련집단($M=11.00$)과 통제집단($M=14.40$), 8주 후의 지속검사에서도 훈련집단($M=11.70$)과 통제집단($M=14.8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훈련집단의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는 사전검사($M=13.30$), 사후검사($M=11.00$) 및 지속검사($M=11.7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향

상훈련집단의 검사시기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ukey의 HSD로 사후검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훈련집단의 검사시기에 따른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그리고 사전검사와 지속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사와 지속검사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이 조롱놀림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효과가 8주 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감향상훈련은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된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는 8주 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19>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의 단순주효과 검증결과

Source	SS	df	MS	F	P
집단 @ 사전검사	8.45	1	8.45	1.64	ns
S/A	92.50	18	5.14		
집단 @ 사후검사	57.80	1	57.80	8.10	.025
S/A	128.40	18	7.13		
집단 @ 지속검사	48.05	1	48.05	8.85	.01
S/A	97.70	18	5.43		
검사시기 @ 훈련집단	27.80	2	13.90	15.44	.001
S/A	16.20	18	0.90		
검사시기 @ 통제집단	0.80	2	0.40	1.00	ns
S/A	7.20	18	0.40		

<표 20> 훈련집단의 조롱놀림 집단따돌림 점수의 사후검증결과

평균	사전(M=13.30)	사후(M=11.00)	지속(M=11.70)
사전(M=13.30)	-	2.30*	1.60*
사후(M=11.00)		-	0.70
지속(M=11.70)			-

HSD=0.88 , * p<.05

3)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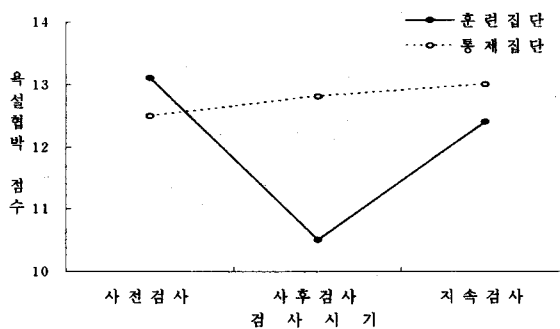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것은 <표 21>,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고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 이다.

<표 21>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M	SD	M	SD	M	SD
훈련집단	13.10	2.13	10.50	1.58	12.40	2.55
통제집단	12.50	2.42	12.80	2.20	13.00	2.16

<표 22>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A(집단)	8.82	1	8.82	0.66	ns
S/A	239.37	18	13.30		
B(검사시기)	16.23	2	8.12	14.23	.001
AB	21.23	2	10.62	18.61	.001
BS/A	20.53	36	0.57		
Total	306.18	59			



[그림 5]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의 상호작용효과

변량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18)=0.66,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검

사시기의 주효과($F(2, 36)=14.23, p<.001$)와 상호작용효과($F(2, 36)=18.6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가 사전검사($F(1, 18)=0.35, ns$)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F(1, 18)=7.20, p<.02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8주 후 지속검사($F(1, 18)=0.32, ns$)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을 실시하기 전의 욕설협박 집단따돌림은 훈련집단($M=13.20$)과 통제집단($M=12.5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을 실시한 직후에는 훈련집단($M=10.50$)과 통제집단($M=12.8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8주 후의 지속검사에서 훈련집단($M=12.40$)과 통제집단($M=13.0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훈련집단의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는 사전검사($M=13.10$), 사후검사($M=10.50$) 및 지속검사($M=12.4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집단의 검사시기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ukey의 HSD로 사후검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공감향상훈련 훈련집단의 검사시기에 따른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후검사와 지속검사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전검사와 지속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감향상훈련이 훈련 직후에는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를 사전검사에 비해 의미있게 감소시켰으나, 8주 후에는 훈련 직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다소 증가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감향상훈련은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나,

<표 23>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의 단순주효과 검증결과

Source	SS	df	MS	F	P
집단 @ 사전검사	1.80	1	1.80	0.35	ns
S/A	93.40	18	5.19		
집단 @ 사후검사	26.45	1	26.45	7.20	.025
S/A	66.10	18	3.67		
집단 @ 지속검사	1.80	1	1.80	0.32	ns
S/A	100.40	18	5.58		
검사시기 @ 훈련집단	36.20	2	18.10	41.77	.001
S/A	7.80	18	0.43		
검사시기 @ 통제집단	1.27	2	0.63	0.90	ns
S/A	12.73	18	0.71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된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는 8주 후까지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24> 훈련집단의 욕설협박 집단따돌림 점수의 사후검증결과

평균	사전(M=13.10)	사후(M=10.50)	지속(M=12.40)
사전(M=13.10)	-	2.60*	0.70
사후(M=10.50)		-	1.90*
지속(M=12.40)			-

HSD=0.74 * $p < .05$

4) 강탈구타 집단따돌림

집단과 검사시기에 따른 강탈구타 집단따돌림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것은 <표 25>,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6>와 같다.

<표 25> 강탈구타 집단따돌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M	SD	M	SD	M	SD
훈련집단	43.60	3.86	46.20	2.39	45.40	3.13
통제집단	43.60	4.29	44.60	4.11	44.60	4.32

<표 26> 강탈구타 집단따돌림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A(집단)	2.82	1	2.82	0.33	ns
S/A	154.03	18	8.56		
B(검사시기)	7.23	2	3.62	7.91	.01
AB	1.63	2	0.82	1.79	ns
BS/A	16.47	36	0.46		
Total	182.18	59			

변량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18)=0.33,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검사시기의 주효과($F(2, 36)=7.91,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효과

($F(2, 36)=1.79,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학년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 요소로 구성된 공감향상훈련을 실시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이들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공감향상훈련을 적용한 훈련집단 아동이 통제집단 아동보다 사후검사에서 공감 점수가 향상되었으므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는 공감 훈련으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킨 김기순(1996), 이옥수(1996), 채현탁(1998), 송호연(1999), 광경련(2002) 및 박재룡(2001)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후검사 후 8주 후에 지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감향상훈련은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의 가해행동 총점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재룡(2001)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감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집단의 공격행동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 형태별로 공감훈련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무시소외와 조롱놀림 집단따돌림에서는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효과가 8주 후까지 지속됨으로써 공감훈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욕설협박 집단따돌림은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나 그 효과가 8주 후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이처럼 욕설협박 집단따돌림의 개선이 8주 후까지 지속되지 못한 것은 본 공감향상훈련의 내용이 주로 공감의 언어적인 표현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최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거칠고 황폐한 언어문화에 젖어 있어 아동들의 과격하고 극단적인 언어사용 습관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욕설협박 집단따돌림까지 지속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내용을 보다 강화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훈련효과를 다시 한 번 밝혀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강탈구타 집단따돌림은 훈련직후 뿐만 아니라 8주 후의 지속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탈구타 집단따돌림의 경우 그 특성상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개입이 이루어지므로 비폭력적·심리적 집단따돌림인 무시소외이나 조롱놀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본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아동이 강탈구타 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소수의 가해아동으로 인해 본 훈련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이들은 Salmivalli(1996)가 분류한 것처럼 적극적

이며 자발적으로 가해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ringleader bullies)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가해아동의 집단따돌림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공감향상훈련보다는 회기를 늘려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강탈구타의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훈련을 적용하여 훈련효과를 다시 한 번 밝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공감훈련으로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개선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데에서, 연구대상 아동의 행동 변화를 연구자가 실제로 관찰한 내용이나 타인의 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자료로서 검증하였다. 따라서 공감훈련으로 공감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개선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고가 행동을 매개하는 가의 여부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공감훈련 효과를 가해행동의 개선 여부로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지적 사고인 공감능력이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의 가해행동을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외에 관찰 자료, 가족 및 피해자 등의 평정척도 등을 통해 보다 명료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에게 정서적 요소를 많이 요구하는 공감향상훈련이었지만, 양적인 통계처리결과 및 참여 아동들의 행동 관찰과 이들의 참가 소감문을 분석할 결과 공감향상 훈련은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에게 공감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의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경상남도 T시 소재 Y초등학교 5학년 아동 10명을 공감향상훈련집단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5학년 집단따돌림 아동 중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훈련효과를 밝혔으나, 가해자-피해자의 혼합집단, 가해자-피해자-일반아동의 혼합집단으로 구성하여 그 훈련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급이나 그 집단의 역동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교우도(sociometry)를 이용하여 학급이나 집단내의 역동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후속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형 검사와 함께 관찰자료, 가족 및 피해자 등 주변인들이 보고 한 결과를 함께 분석해보는 것도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고혜영(2000).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곽경련(2002). 사회적 기술향상 집단상담이 아동의 공감능력, 자기노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은영(2000).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 따돌림 예방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개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정안((200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기순(1996).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공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도움행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석진(1999).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와 관련 요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순한(1999). 따돌림아동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단계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2000). 한국형 변형 또래지명 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집단따돌림 및 또래 괴롭힘 측정도구. *신경정신의학*. 40, 867-875.
- 김용태, 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 조사.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 보고서*. 29, 55-84.
- 김인규(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5, 55-84.
- 김정원(2000).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종미(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0(2), 17-33.
- 문경숙(2001). 집단따돌림을 당한 초등학생에 대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룡(2001).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희(1996).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손진희, 양재혁, 홍지영(1999).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송호연(1999).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도움 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오형석(2000). 집단상담이 초등학생들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 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리교육(1999). **왕따리포트**, 서울: (주)가우디.
- 유채환(2000).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고립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 이옥수(1996). **자기노출 및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국민학생의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순(1991). **상담실습자 교육에서의 공감 훈련 효과의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영선(2002).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이 집단따돌림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창식(2000). **왕따의 가해/피해아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측정 지위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채현탁(1998). **중학생의 이타행동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귀순(2001). **집단상담이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미경, 도현심(2001).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0, 31-46.
- 한종철,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103-114.
- 황성숙(1998). **학교 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Carkhuff, R. R. & Truax, C. B.(1965). Training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 evaluation of an integrated didactic and experiential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426-431.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Egan, G.(1976). *Interpersonal living: A skills/ contract to human relations training in groups*. California: Publishing company.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ew York: John Wiley.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s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Program on the Enhancement of Empathy and Bullying's Degree for Bullies

Jung, Jung-Bun · Kim, Jong-M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on the empathy and bullying's degree for bullies.

The research hypotheses set to achieve this goal were as follows.

1. An experimental group that gets empathy training might make a better improvement in empathy immediately after the training than a control group that doesn't,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might last till eight weeks later.
2. An experimental group that undergoes empathy training might show a more significant decrease in bullying's degree for bullies immediately after the training than a control group that doesn't,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might last till eight weeks late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 children who were designated as bullies when 40 fifth graders from Y Elementary school and 31 children from S Elementary school in the city of T, south Gyeongsang province, took K-PNI. Those children were asked to tell about who were attackers and who were victims, and 10 children each were selected from the two elementary schools as bullies, who were respectively select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used in this study was prepared by modifying the empathy training programs developed by *Shin Gyeong-il*(1994). That program was prepared to be appropriate at fifth grader level. To assess how much the selected children bullied their peers, *Kim Seok-jin*(1999)'s School Bullying Inventory was utilized. Besides, *Song Ho-yeon*'s revised version to assess the change of counselee empathy was employed.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s, ANOVA was implemented.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result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was effective in changing the empathy of the bullies for the better, and their improved empathy remained the same eight weeks later. Second,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had an effect in reducing bullying's degree for bullies, and there was no change in their reduced bullying's degree eight weeks later. Third,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served to change their neglecting/ ostracizing and ridiculing/teasing behaviors. And the retention test that was implemented eight weeks later showed the effect of training remained unchanged. Fourth,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was effective in changing their cursing/threatening actions according to the posttest results, but the retention test showed that its effect didn't keep on. Fifth,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didn't bring any changes to their robbing/striking actions either immediately after the training or eight weeks later.

